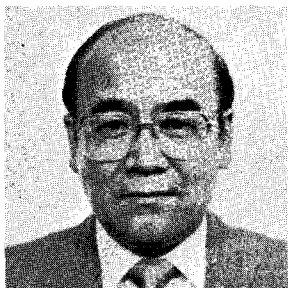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



김건열/서울대 의대 내과교수

결핵으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과 후유증의 증상이 우리 신체 여러곳에서 발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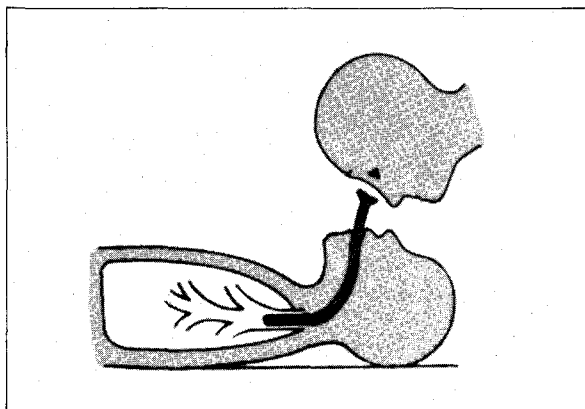
이런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서 그 예방법과 치료법을 사례별로 알아본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폐결핵환자중 많은 수의 환자가 기관지확장증을 가지고 있고 초기의 증상은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이 유사하여 어느쪽이 먼저 생기고 어느쪽

이 나중에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조사한 기관지확장증의 원인검색에서 25%의 환자가 결핵성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폐결핵이 기관지확장증을 일으키는 중요원인임을 알 수 있고 또 폐결핵이 치유된 경우(결핵균음성상태)도 기관지확장증이 후유증(속발증)으로 남아 혈담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기관지확장증은 결핵과의 감별진단면에서 뿐만 아니라 치료면에서도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 기관지확장증에 얽힌 여러환자의 기억이 남아있다.

기관지확장증의 주증상은 혈담이나 각혈을 하는 증상과 늘 많은 양의 객담(가래)을 뱉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하루에 뱉어내는 객담의 양은 치료를 앉하는 경우는 커피잔으로 두세잔 이상 더 나오는 수도 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침과 함께 많은 양의 객담과 혈담을 뱉어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런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벼운 감기에 걸려도 다른사람에 비해 증상이 심하고 오래 끄는 것이 보통이고 폐염등 합



기관지확장증의
주증상은 혈담이나
각혈을 하는 증상과
늘 많은 양의
객담(가래)을 뱉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병중에 걸리는 확률도 높게 마련이다.

기관지확장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렸을 때 기관지염, 폐염, 백일해등 감염성 질환을 앓았을 때 불충분하게 치료했거나 면역결핍성체질을 가졌거나 하는 경우 잘 발생되며 드물게 선천성 및 유전성요인이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이 감염성기관지폐질환이나 축농증등 부비동염증성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못해 생긴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경우 결핵이 원인 및 결과로서 겸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관지확장증환자의 확진을 위해서는 3회이상의 객담배양에서 결핵균의 유무를 확인 하는것이 꼭 필요하다.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은 흉부 X-선검사 이외에 세균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기관지조영술, 전산화단층촬영검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검사를 실시해야 확진이 되는나 하는 것은 역시 전문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영상진단결과와 임상증상 및 진찰소견을 토대로 최선의 치료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는 내과적인 치료

를 할것이나 혹은, 외과적으로 폐엽절제술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전문의사 간에도 이견(의견이 다름)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전문검사하에 수술적응을 정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관지확장증이 일측폐의 일부에 국한해 있을 때는 수술적 제거치료를 하는것이 이상적인 치료이나 적지않은 경우 제거하고난 폐조직주변에 다시 기관지확장증이 있었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수술적응결정에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필자에게 통원하고 있는 많은 기관지확장증환자가 수술후 재발된 기관지확장증 때문에 통원하고 있는 환자가 많아 이들 환자에게 내과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할것인지 아니면 재수술을 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 기관지확장증이 초기이고 발생한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원주형(원통형) 확장증인 경우는 내과적치료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으며 낭종형(주머니모양)으로 오래된 기관지확장증은 수술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원상으로 회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

지확장증의 내과적치료로는 거담제(거담용해제)와 기관지확장제, 항생제, 체위배농법 등으로 요약되고 많은 경우 복합적인 세균감염이 겹쳐있으므로 원인균에 대한 살균력을 가진 항생제를 투여해야 할 때가 많다.

기관지확장증을 생각하면 10년째 내진찰실을 주기적으로 다니는 A부인, 5년째 다니는 B부인, 3년째 다니는 C부인 등 많은 환자가 머리를 스킨고 지나가나 수술을 받으려해도 폐기능이 적절하지 못해 수술요법을 못하는 기관지확장증환자라던가, 수술후 재발전 기관지확장증환자가 더이상의 폐절제수술이 불가능하여 고생하는 환자, 신혼을 앞둔 젊은 여인의 기관지확장증 때문에 친정, 시집식구들의 눈치싸움속에 결단을 내려주어야 하는 의사의 입장등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희비애락이 많이 경험되고 있다. 기관지확장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면 질병관리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①성장기 어린이의 호흡기감염증은 철저히 치료되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오래끄는경우 기관지확장증이 발생하여 성장기이후 성인년령까지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②하루에 뱉어내는 객담량이 커피잔으로 반잔이상되는 경우는 기관지염이나 기관지확장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담의 성상, 일일배출량, 혈담의 유무등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③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객담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기 스스로가 객담배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곧 금연부터하고 객담의 변화를 관

찰해야 한다.

④ 2개월이상 다량의 객담을 배출하고 한번이라도 혈담을 경험했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의논하여 기관지확장증이나 다른 유사질환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⑤기관지확장증은 내과적으로 치료하던지 외과적으로 절제수술을 받던지 오랜기간에 걸쳐 몇달 몇년간에 걸쳐 의사와의 빈번한 접촉과 의견을 필요로 하는 병이므로 인내와 병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⑥많은 내과적병이 근치요법보다는 병을 다스리며 같이 살아간다는 개념함에 조금씩 굴지말고 병을 다스리는 슬기를 길러야 한다.

끝으로 환자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도움 협조등이 필요하고 생명단축이 되든 병이 아니고 다만 좀 귀찮은 병이라고 이해하고 모든 가족들의 도움을 아끼지말아야 할 것이다. †

